

학술기획

新 자유주의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한국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로 노동탄압

글심는 순서

1.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한 전세계적 저항들

3. 신자유주의의 민족국가, 민주주의와의 관계

자본주의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자유 경쟁자본주의-자본독점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경로로 같다.

자본주의는 경쟁 경제로 기반한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갖는다. 고정경제에서는 시장의 폐기나 자본이 아무 런 방해없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때 재화 분배의 효율성이 최적화된다.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대의 효용을 확보한다.

그러나 경쟁경제자들은 인정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폐기나 자본은 완전경쟁경济이라는 이론적 가정 속에서나 가능하다. 실제 시장경제에서는 생산규모 및 정보의 취득 정도, 생산력 수준 등 생산기구들의 조건들이 상이하며, 기존 기업의 신규 기업과 대항 퇴색(진입장벽)도 상당하다. 여기에서 요인들 때문에 경제는 점점 둑·과점화되며, 상품의 가격은 독점기업의 자의에 따라, 또는 몇몇 과점기업들의 조작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기업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경쟁이 수요를 부족화하고 과잉생산 및 자본의 과잉축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려는 자본간 경쟁이 국가마다 기반된다. 전쟁은 국기와 인플레이션을 낳아 가족은 죽고하고 통화 가치는 폭락하여 따라 시장질서가 붕괴된다. 다시 통화 가치를 복구하기 위한 디플레이션 정책은 자본가치의 금액을 가져와 기업들이 연쇄 파산하여 공황이 발생한다.

포드주의 시대

여기까지가 자유경쟁경제에서 단순독점경제로의 이행이라면, 당시 국가독점단계로의 이행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면서 나타난다. <고민생산-수요부족-재고증가-생산축소-재량설입-수요위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는 대규모 국가사업(주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유발하려 수요를 팽창시킨다.

고용증가와 수요팽창에 따라 고용생산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이어 산업에 대한 과급과로로 인해 경제 전체가 허파를 되찾는다. 국가는 여러 가지 복지지출을 통해 간접임금을 공급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운영으로 안정고용상태를 유지한다.

임금의 결정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의지

해 중산층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노조조직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재정 및 무역赤字의 해소와 함께 복지 국가시기에서 노동에 빼앗겼던 혜택모니를 되찾기 위한 자본 및 보수경당의 각종 정책·전략·이데올로기들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또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로 일컬ается. '자유' 주의라는 것은 시장에 거나 경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개입을 대폭 줄소했다는 의미이고, '보수' 주의라는 것은 포드주의적인 계급차별화 제도 폐기하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세를 강화하는 의미이다.

'신'(neo)이라는 수사는 자본주의 초기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프로스펙팅 이후 나타난 구구적 보수주의라는 전통의 계승과 일정부분 변화

를 함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미리 다른 축면에서 동일한 시대적·상황적 흐름을 설명하는 개념들로서 동반의 양면화도 같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및 신보수주의)의 경향은 단지 미국과 영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 경제불황에 처한 서구 각국 및 일본 등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어려가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성장의 질곡

전술한 바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경향은 90년대 한국사회에서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는 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에서



노사가 하나되면 競争 경쟁력 열이 됩니다

지금은 무한경쟁시대-
노와 사가 마음을 맞추고 힘을 더할 때
경쟁력이 생깁니다.

세계시장에서 성장한 우리의 기업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된 노사입니다.

세계사업의 Made in Korea -
노와 사가 하나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영삼정권은 노동은 억압하고 자본, 특히 독점자본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를 세계화로 경쟁강화하는데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하려 노력해 왔다. 사진은 이를 선전하기 위한 공의광고협의회의 포스터다

70년대에는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화로 이행하였으며, 80년대 후반부터는 3차산업의 비중이 급상승하는 한편, 첨단기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로의 구조조정단계로 돌아온다.

이는 80년대 중반까지 중간수준의 기술력과 저임금을 비교우위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전에는 이러한 비교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60년대 이후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라 성장한 노동계급의 조직화·역량이 8년만으로 크게 강화된다. 결국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상당부분 노동의 승리로 극복되며 봄에 따라 임금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자립금이라는 비교우위의 상식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불거졌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자본과 부패관료로 결탁하는 기존의 친민자본주의적 고비화 구조를 깨뜨리고 경제구조의 전반을 협력화·민주화하면서, 기술개발에 자본을 집중투자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탈원위주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노태우정권은 전히 무능했으나, 풀어진 경제에서 자본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사채제과 및 풍기부리를 몰아친 한편, 수출의 외무에서 벗어나 확장된 국내시장에 친숙하였다.

그 결과, 88년 경국 이후 처음으로 후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비로 이듬해부터 적자일로에 놓이게 되었고, 기술개발은 지연되었으며, 지대 상승에 따라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사회는 80~88년에 거시경제적 지표에서 보은 성장의 이면에 정치·사회·경제구조면에서 비민주성과 반민주성을 벗어난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87년 이후 민주화와 민중부문의 성장이 비로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북자국과의 포드주의적 계급타파는 이제 발전초기에 불과하다.

한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체계인 노동관계의 민족화로의 변화, 한국의 조직노동은 최근에나 전국적 조직으로 공고화되었으며,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서는 적이 없다.

그러나 경쟁국과의 토지공개념 정책은 구멍

투성이의 하구로 드러났다. 3당연합이라는 보수

대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김영삼정권과 독점자본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는 처음부터 한

계가 노경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이 고임금에 대한 신경하고 있다.

생산성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높

다는 데 <고비용 구조>의 책임을 들리면서 그

러나 정부기관에서 나온 통계자료에서도 생산 성 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의 정도가 항상 낮으며, 심지어 양자의 폭이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산성 상승률>은 고임금 상승률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성 임금제>를 주장한다. 그리고 올해 초 정부와 산한국당은 복수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등 노동법은 존속시키는 반면, 경제해고제,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시장에 대한 규제와 보호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하면서,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자유화를 해결하기로 제시한다.

이렇게 김영삼정권은 노동은 억압하고 자본(특히 독점자본)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를 <세계화>나 <경쟁력 강화>나 하는 이데올로기로 정착화하려 노력하였다.

자립금이라는 비교우위의 상식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불거졌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이데올로기인 깨끗한 구조조정의 비용을 노동에게 일방적으로 전달시키면서, 시장에 거나 경제에 대한 자본을 강화하는 점에서 대체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의 신자유주의와 백화점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영국이나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결코 동일하지도 않다.

서구의 신자유주의는 북자국의 실패 및 포드주의의 한계에 바탕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일각으로 친당화의 근거들도 함께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는 북자국 거의 실패나 포드주의의 한계라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사회는 80~88년에 거시경제적 지표에서 보은 성장의 이면에 정치·사회·경제구조면에서 비민주성과 반민주성을 벗어난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87년 이후 민주화와 민중부문의 성장이 비로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북자국과의 포드주의적 계급타파는 이제 발전초기에 불과하다.

한 사회구성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체계인 노동관계의 민족화로의 변화, 한국의 조직노동은 최근에나 전국적 조직으로 공고화되었으며,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서는 적이 없다.

그러나 경쟁국과의 토지공개념 정책은 구멍

투성이의 하구로 드러났다. 3당연합이라는 보수

대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김영삼정권과 독점자본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는 처음부터 한

계가 노경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이 고임금에 대한 신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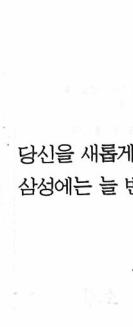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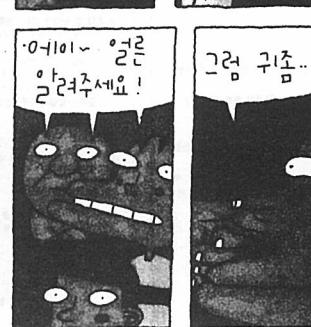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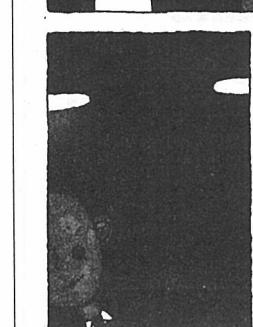
생산성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높

다는 데 <고비용 구조>의 책임을 들리면서 그

윤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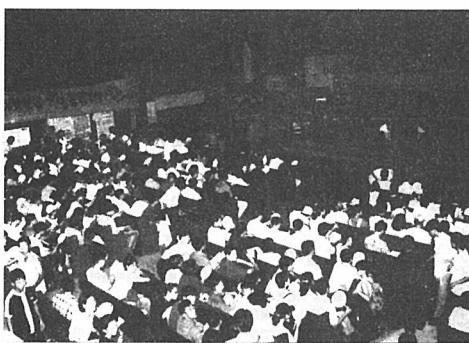
<대학원 정의와 석사과정 2회기>

밀을 수 있는 친구-삼성



당신을 새롭게 하는 힘,
삼성에는 늘 변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SAMSUNG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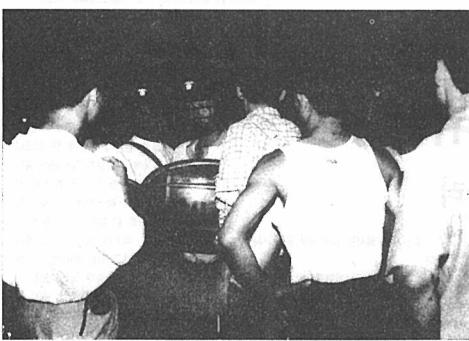


8·15 통일행사 전날인 14일,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의 통일대회를 촉구하는 현마당을 열었다. 정권은 법적적인 광화집회자 원천봉쇄하였으며 현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시흥성당으로 거리를 옮기면서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경찰은 학생들의 전원 연행방침을 발표했지만, 함께 참여했던 시민단체 어른들은 안전 귀향을 촉구하며 정권의 탄압에 맞섰다.



지방의 복역들까지 집중일원화 서울의 모든 대학교는 원천봉쇄 되었다. 그 대학 학생까지도 학교로 못들어 가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워지자 이례적으로 지원인 광주 조선대에서 차별 범민족대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권은 헬기로 최루액을 날사하여 조선대를 침입하였다. 결국 범민족대회는 악으로 처리되었으나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청년 학생들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용산가족공원에는 가족들이 아닌 공권력만 있었다. '97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열린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용산가족공원 역시 전경들로 밀집되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 청년학생들은 통일을 향한 권리에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뒤늦게 참석하려는 시민마저도 출입을 금지하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이다.

교과경영·초우령·LG

강철왕 카네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젠, 비철왕 LG금속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면 다들 잘 아시지만, 비철이 하면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우리 생활을 둘러보면 비철이 쓰이는 곳은 많습니다.”

전선에 사용되는 동(鐵), 냉장고·에어컨·보일러의 둥파이프,
금·은 등의 귀금속까지 모두 LG금속이 생산하는 비철소재입니다.

연간 400만톤의 동을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종합 비철기업으로 우뚝 선 LG금속~
이제, 기초재는 물론 첨단소재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세계적인 종합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LG 금속



비철재련
순도 99.9% 이상의 음을 비롯한
금속재련과 부수장인 활산,
반도체용 활산, 혼합무수광 등
화성제품을 생산합니다.



귀금속
금·은의 괴이 이를 가공한
유리제품을 비롯하여 백금,
피리동, 세라믹 등의 희금속을
생산합니다.



금속기공
ISO 9002, JS 등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한 풍차파이프 및 고기름管 등
전선부문에 쓰이는 무선관,
국내 최대의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스테인리스파이프를 생산합니다.



특수소재
금속을 글로벌화하는
TFI-LCCO를 주제로 한 특수소재
POBE 전해제거 등 신
기술로 특수기계·제품·제품
등의 환경개선제를 생산합니다.

통일대회 보도기사

전국 봉쇄, 범대회 조선대서 치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조국통일법 민족연합(남북련)과 함께 8월 15일(금) 오전 11시부터 광주 조선대에서 8차 범민족대회 및 7차 범정착현 통일대축제를 열었다. 한편 지난 8월 범민족대회와 차별정착현 통일대축제를 8월 13-1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여 경찰과 경찰본부로 강관을 조선대로 옮겨 악으로 전진했다. 정권은 이 기간동안 서울을 비롯 수도권 주요 대학에 까지 병력을 배치해 참가자들의 집을 막았고, 특히 15일에는 서울지역 모든 대학을 봉쇄하였다.

대회는 '민족주와 평화'와 차별정착현과 차별화 및 원천봉쇄로 강관을 조선대로 옮겨 악으로 전진했다. 정권은 이 기간동안 서울을 비롯 수도권 주요 대학에 까지 병력을 배치해 참가자들의 집을 막았고, 특히 15일에는 서울지역 모든 대학을 봉쇄하였다.

8·15 대회와 관련 학생 400여명을 연행했고, 서울시내 곳곳에 평화방을 배치, 검문검색을 하고 대회장을 막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권은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열려 윤신가족원과 시흥성당 주변에도 병력을 배치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석을 막으려 했다.

김영준 기자

조례사에서 농성중인 통선대 농성단장을 만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싶어요”

지난 15일 8월 통일대회를 맞아 정경이 서울지역 전체를 검문검색하는 공안단속 속에서도 조례사로 들어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0] 범정착현 통일선봉대 농성단원 이종수(가명)군을 만나 및 가지 얘기를 들어보았다.

조례사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상성장을 지닌 여론전이 필요할 것 같았다. 광주지역 3000명의 통선대 중에서 120명이 상경했으나 절반만 들어왔다.

조례사측의 반응은 어떤가?
스님들은 개별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우리들의 농성을 보장해주시다. 요즘에는 스님들이 돈도 쥐어주고 개인적으로 힘내라고 하려고 해주시고 밥도 같이 해먹는다.

올해 통일선봉대가 가지는 남드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작년 연대행장 이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반년이 걸렸다. 그리고 일상부정, 출발식 등 상반기 투정을 잘 이겨왔지만 출발식과 파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과 극심한 공인단압으로 현재 한총련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번 통일선봉대는 한총련اب분대, 김영삼경관타도, 조국통일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기조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하루하루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가?
조례사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물론이라 이곳의 특수성을 잘 몰랐다. 항상 시민들이 불법을 드리기 때문에 구로도 외칠 수 있고, 노래와 춤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퍽카와 대차보리를 이용해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님들과 신도님들께 우리들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풀을 알리고 있다. 매일 조별로 교양과 토론을 하고 있다.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제한되어 있지만 미운은 거리를 뛰어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싶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떠한가?
'네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 역시 학생들이 잘하고 있다.' 얘기가 아직도 정신을 못리고 있네' 등등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그래도 역시 우리들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한총련에 대한 실망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가지고 목록히 투쟁하는 우리들에게 머지 않아 돌아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김정경 기자

통일대회 준비과정

6.24합의 도출 성과… 통일단결해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때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민관과 남북경협으로 인한 경수증 건설, 그리고 북한 기야에 대한 식량지원으로 북한과 민족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족민주통일전진회의 8월 통일대회에 대한 논의도 깊게 이루어져 왔다.

통일본부의 대표적인 두 단체는 조국통일법 민족연합(남북련)과 주진통일회(위원장 이경우·전국민족대회(민족회)이다. 남북, 해외교포가 통일의 주체로 나서고 이들이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는 담론에서 결성되었다. 그들은 통일에 나서는 정치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첫째, 한국국정·평화정착과 남북한·북한과 미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제정, 둘째, 각각 범죄를 저지르며 한국의 자주적 군사권을 침해하는 주권이군수수·셋째, 진정한 통일 논의와 기로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네째, 통일의 과도기적 방법으로서 연방제 채택, 이를 위해 범민련은 자단까지 차례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범민련은 범족본부와 연합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권과 공안당국의 끝없는 탄압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과의 원활한 만남을 갖기 힘들었다. 민족회는 통일 논의를 하면서 공안탄압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9년간 범민련에서 갈라져 나온 단체로 대항 정착적 과제는 남북미평화경협체결,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 철폐, 제안주체와 한총련(평화회원·남북련)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족회는 공권력의 탄압을 끝기 위해 범민련이 제안주체가 아닌 참가 제작을 받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과 한총련이 범정착현 행사를 대회안에서 하지 않을 것 등을 주장했다. 이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두 단체가 연대해야 한다는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대회를 앞둔 8월 까지 진행된 다방면에 걸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니의 대회는 차지지 못했다. 그러나 두 단체의 여러 합의 과정에서 나온 노력은 내년에 대한 대회를 치를 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두 단체가 연대해야 한다는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대회를 앞둔 8월 까지 진행된 다방면에 걸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니의 대회는 차지지 못했다. 그러나 두 단체의 여러 합의 과정에서 나온 노력은 내년에 대한 대회를 치를 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두 단체가 연대해야 한다는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쇠대만평

일반시민 경계연행... (8.15 윤상경 향)



글 실논 순서

1. 학생회와 학생과의 공통분모는...
2. 공안단압의 실제
3. 한총련, 그들로 과연 적격단체인가
4. 학생회, 그 혁신의 현장을 찾아
5. 좌당화·학생운동의 재도약을 위하여

학생회의 할로를 보색한다 - ① 학생회와 학생과의 공통분모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 눈높이의 생활·학문·투쟁으로 학생회 강화해야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라는 구호를 내걸고 각 대학 단대 학생회까지 참여하여 9년 출범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의 이론과 요구에 대해서 건설했고 험하게 학생들의 것으로 꾸리기어야 할 학생회. 작년 8월 연대 통일투쟁과 함께 한총련을 중심으로 생긴 이석씨의 죽어간 이후 불거진 정부의 공관 열풍으로 이러한 한총련과 학생회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학생회의 혁신과 일정을 위해 그들이 당면한 대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학생회에게 비판하는 학생회의 현주소를 조망함으로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회 강화의 일정이 될 학생회와 학생들의 공동분모를 찾아보기로 한다.

한총련 왜 최대위기인가

정권말기의 김영삼은 노동법개악, 한보사태 및 대선자금 등 그 태생적 계획을 극복하지 못하고 궁지에 빠졌다. 그 결과 인정적인 정권재창출을 위해 한총련에 대한 미나사에서 전진을 일으켜 끝난다.

5)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한총련을 이직단체로 규장경과 동시에 해설부간 147명을 퇴임에 공개·폐하고 5년은 물론 심지어 3~4년 주요간부들까지도 몇백만원의 현금상을 걸어 걸어져 나서고 있다. 이런 물리적 탄압과 더불어 대규모 이데올로기로 학생회를 침입·진압되고 있다. 언론은 한총련의 구호나 주제는 속 빤체 일색적인 언어로 그들을 좌경용광분자로 끌어가고 있으며 안기부는 한총련 탈퇴강요 등을 통한 분열을

화해를 꾀하고 있다.

지금도 컴퓨터 통신에는 날마다 한총련 탈퇴 강요와 관련한 인권탄압 소식이 유틸리오고 있다. 각종 암전기 구속증 충남총련 의장 김진우(한총련 탈퇴 조치와 배임 등 혐의로 충북총회장)군은 한총련 탈퇴 자리를 쓰리고 강요받고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

의 문제점과 치열되고 있다. 정권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의한 학생들과의 간접감, 일꾼들의 수배와 겸기증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 이로 인해 학생회와 학생들의 의사소통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6)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한총련을 탈퇴한 학생들은 학생회를 운영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생회는 학생들이 자기이지만 알고 놀거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외부적 어려움이 한총련과 학생회 내부

의 문제점과 치열되고 있다. 정권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의한 학생들과의 간접감, 일꾼들의 수배와 겸기증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 이로 인해 학생회와 학생들의 의사소통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생활·학문·투쟁을...

“학생들은 학생회를 운영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생회는 학생들이 자기이지만 알고 놀거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학칙 독소조항 점검 - ① 학사제적

교육받을 권리 박탈...명백한 위헌

교육자의 책임외면, 성적을 무기로 휘둘러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는 학칙이 있다. 학칙은 학생들이 해야할 일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 시절의 학칙은 당시 사회개혁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 늘어난 독소조항들이 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남아있는 상태다.

또 작년 6·15 연세대 통일투쟁과 함께 5)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 이후 김영삼 정권의 ‘학생회 새길리기’가 계속되면서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한 독소조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보는 우리학교의 학칙 중 부당한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살펴 갈아보기로 한다.

한총련의 구호나 주제는 속 빤체 일색적인 언어로 그들을 좌경용광분자로 끌어가고 있으며 안기부는 한총련 탈퇴강요 등을 통한 분열을

화해를 꾀하고 있다.

우리 학교 학사제적 관련 조항을 보면 ‘학업상적 평점평균 1.50이상으로 학사경고 3회 받은자, 평점평균 2.00 미만으로 학사경고 4회 받은자, 재학연한 초과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育법전에는 ‘교육은 흥미인간의 아님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여...’로 교육의 목적이 나타나았다. 이것

은 즉 총체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좀 더 나은 사람

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학회의 제작조항을 보면 이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학교가 학생들을 도리어 내쫓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5·31 교육개혁안에서 학사경고제 및 학사제적제도를 학생들이 언제든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한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과 자신의 성적에 맞게 그에 그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일반교육의 시대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제도다.

또한 대학종합평가제 실시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 학사관리를 강화한다고하면서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제들이 양산되고

있을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강대를 들 수 있다. 서강대는 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학사제적제상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은 ‘△1학기 평점평균 1.50 미만 △2학기 평점평균 1.60 미만 △3학기 평점평균 1.70 미만 △4학기 평점평균 1.80 미만 △5학기 평점평균 1.90 미만 △6학기 평점평균 2.00 미만인 학생은 제적퇴학의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사제적 조항을 짜면서 학생회 1학년 48명이 제적당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물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을 유능한 인

재로 육성해 사회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성적처리 등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제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언제든지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사경고제 및 학사제적제로는 폐지되어야 한다.

학점취득 및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면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두 번 세 번 계속 수강해 학점으로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제가 폐지되어 도 대학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및 유능한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권 기자

이번 인식에서 1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법대 1학년 학생회에 있는 정독기군의 말이다. 외부의 단암이 극심해지고 학생회의 고리라인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회 같은 스스로가 그것을 걸친하고 대중을 만나려는 용기임이 조치. ‘魄’은 학생회 각성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책임있게 대신 처리하는 역할’ 등의 의견과 같이 학생회가 자신들의 조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대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학생회가 어떠한 평가를 예상하는지 본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규모 설문조사와 함께 이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가장 두드러운 지적은 ‘일반 학생에게는 대처하지 않는다’. ‘사업을 다양하고 구조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회에 대해 소통의 질문도 많지 않으나 현재의 공안단압으로 한총련의 전격적 해체를 외치는 학생, 평가는 나온다. 학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장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을 제공하는 학생 등등.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려? 투쟁은 대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설문지의 대답이나 ‘학생회는 학생회를 친목의 계기로 활동.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솔직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2일에는 경기원 의장이 체포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수준과 단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한 접두어에만 빠져 있다. 때문이니 투쟁하기 위해 두드러워 휴일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회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다녀와

양배움터, 'YS 농업정책은 살농정책'

97 여름 농활대가 서울배움터는 전북·충청· 순창으로, 용인배움터는 경기도 여주로 각각 7월8일, 8월 9일 등 3일 다녀왔다.

서울배움터 농활대는 김영삼 정권의 신농장을 농업포기 정책, 살농정책으로 규장하고, 김영삼 정권의 조기하이안이 농업을 외상하는 걸'이라는 가치지에 순창군 농민회, 서울여자대학교와 연세대여 힘든 일정을 마치고 7월 9일 돌아 왔다.

하계 전체교수간담회 열려

간부자격기준 강화 검토

97년도 하계 전체교수간담회가 지난 29일(금) 오후 2시 용인배움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회의내용으로는 △이·공계 및 동구어학과 이론기기과와 대학원 업무 이관(일부) △경인지역 대학교 학부 학과교류협정 체결 및 특차 인지역 22개 대학, 6학점이나, 꿈점 3.0이상 1년 이상 수료자 △감시기반법 제재 요청 △시험시간 축소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 서울배움터 출신생회 연구사업 위원장 조진진(서양·독일)이 3군은 '농조를 통해서 학생들을 농민들 서로에게 서로에게 이해의 장이 되어나온 평생을 내렸다.'

경기도 여주군 용은 리 농활대에 참여했던 언론학회의 의장 이재석(공대·컴퓨터공학 4군은)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모든 농활 대원들이 절실히 느낀 것 같다'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을 조사하여 시켜야 할 것'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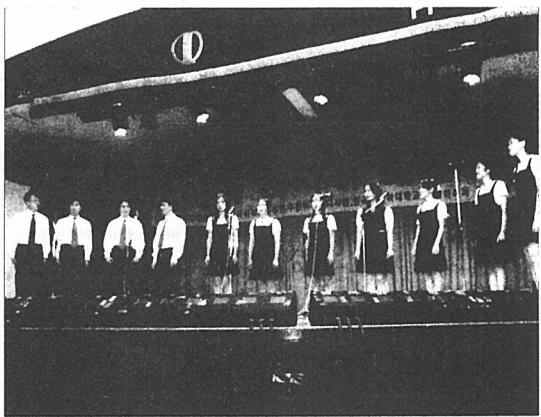
97년국청년학생한마당이 서울배움터에서 8월 8일(금)부터 8월 10일(일)까지 24시간동안 열렸다.

전국의 400여개 800여명의 학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남위와 선위를 넘어, 민주주의 진보를 향한 대중행동광장'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첫째날, 연대미당, 전야제, 환경·여성·평화인권을 위한 헌미당을 진행했고, 둘째날, 학생총회, 대선토론회, 마지막 날에는 공동선언운동을 벌였다.

전국청년학생한마당 열려

800여명 참여속에 서울배움터에서



한총련 관련 연행·구속자 3명

용인배움터 총·부회장 수배증

지난 8월 1일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총괄기·출범식과 관련하여 3인의 학생이 연행, 구속 및 수배를 당했다.

서울배움터에서는 5시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이성현(시사과대학 1군)이 공판 결과, 징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선고받아 현재 출범식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무역 2) 학생은 연행되었다가 기

소유로 돌아왔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장 김

현상(동구·경기리어 4군은)은

한총련 출범기 및 출범식 관련, 부총학회장 김홍희(자과·물리 4군은)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수배증이다.

(상경·무역 3), 박재현(상경·

